

연중 제 24 주 일

기도서 P. 434 A해

제1독서 (집 회 27, 30-28, 9절)

제2독서 (로 마 14, 7- 9절)

복 음 (마 태 18, 21- 35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철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 련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님 전 상서

김 진 소 신부

한 천당에 살면서도 오래 積阻하였삽나이다. 금년 중추절은 사람들 생활이 대근한가 봅니다요. 千苦癡痺의 계절이라는데 업살만은 아닌가 봅니다. 에이그 이러면 터지기가 쉬운데, 송편은 먹어도 목구멍이 찢고렵습디다요. 그런데도 귀성객이 북새통이나 하옵십니까? 형-그게 한쪽의 전통 아닌갑쇼. 한국인의 신앙을 조상숭배 신앙이라 하리 만큼 조상에 대한 공경이 극성입쇼.

저기좀 보세요 저사람 말입쇼, 신앙을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겨도 조상의 위령미사에는 백을 못추고 있지 않습니까요. 나같이 자식없는 늙은 친주교 잘 믿었쇼. 매일 미사때 마다 교회가 꼭 기억해 주고, 명절때는 이렇게... 아니 저 김아무개는 왜 우겨지상 이나구요. 아 자식들이 돈냥이나 있고 벼슬개나 하는데도 연미사 한번 안바친다고, 뭐 드린 자식 똥다나요. 에이영 영감 그럴 것 없는데.

주교님은 지금도 그제 유교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그게 아님쇼. 조상제사는 “事死如生” 죽은 사람을 산사람 같이 섬기다는 한국 고래의 가르침입쇼. 이 사상은 유교의 정신보다 더 종교적이와요. 후손들은 조상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생활에 조상의 '가호'를 비는 것은 순전히 신앙입쇼. 주교님이 조상제사가 우상숭배라고 하신 교시에 식은 땀이 꼭 납니다만. 목편으로 만든 神主가 조상일 수 없고 잠자는 자가 식사할 수 없듯이 죽은자에게 음식을 봉양함은 쓸모없는 일임은 사실입쇼. “家家禮” 예법과 풍속은 집집마다 다를 수 있듯이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안됐쇼. 암요 애그. 그때 배교자가 즐습디다요. 그런데 배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나봐요. 그 권력앞에 알랑방구귀고 과잉 충성하는 자들. 지식을 가지고 간에 불고 쓸개에 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동료들한테까지 보리타더군요. 거 아무 아무개들 조상들이 하는 말이 이번까지는 제사밥 얻어 먹어도 다음부터는 안먹겠메요. 사는게 더럽게 산다나요. 그럴꺼 없는데.

주교님, 저 한국이 요지경 속이지만 하느님께 잘 좀 부탁드림시다요. 부강하고 영신적으로도 살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입쇼.

일천칠백구십일년에 죽은 진산 윤지충이가 올림

〈전주교구 가톨릭 학생회관장〉



죽으면 죽으리라(其一)

〈죽으면 죽으리라〉-이 말은 하느님의 어린 딸, 안이숙씨가 일본에 건너가기 전에 가진 예배에서 그를 진송하는 신자들에게 남긴 말이다. 물론, 이 말은 구약성경(에스겔)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다.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왕에게 진언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단식 기도를 울려 주십시오. 저도 시너들과 함께 단식 기도를 울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뵈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에스겔 4장 16절)

민족이 일제의 억압속에 신음할 때에 젊은 크리스찬 여교사 안이숙은 국내에서부터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 탄압에 걸기 투쟁했다. 1939년에는 동경에 건너가서 위정자들을 위시해 대신·대장·대의사(代議士)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망국행동을 경고하고, 한국 기독교 박해에 항의했다. 일본 제국회의 의사당에서 붙들려 평양 형무소에 이감된 후, 옥고를 6년간 겪다가, 사형집행 몇시간 전에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 8월 17일에 출옥했다.

이 내용들이 수기로 발표되고, 영화가 되었다.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고, 대사가 우리말 복음이 되었다. 마침 부자성월에 이 지방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민족의 어려움과 종교탄압의 꾀박 속에서 약한 여인으로서는 크리스찬의 참모습을 보여준 안이숙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 수기는 바오로 서원에서 출판하고 있으며, 영화 안내는 숲정이 3년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숲 정 이 산 채



제발 기도 좀 많이 해다오!



제3차 순교자 현양대회

때 : 1978년 9월 24일(일)
곳 : 전주 실내 체육관

제3차 순교자 현양대회를 보다 잘 끝맺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몇가지를 당부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일정(예정 시간표)

- 오전 10시 40분 입장완료
- 11시 미사(주교님 주례, 사제단 공동집전)
순교사 특강
- 오후 1시 점심식사
- 1시 40분 무용
- 2시 성가 경연대회
- 3시 응변대회 입상자 발표
- 3시 30분 연극
- 4시 시상식

□ 당부사항

1. 입장 ① 10시 40분까지 본당별로 입장 완료하세요(전주시의 본당부터 신착순 입장)
② 좌석배정이 본당별로 되오니 본당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③ 입장 안내는 해성 보이스카우트와 성실 걸스카우트에서 담당하오니, 학생들이 들고 있는 본당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모이세요.
④ 어린이 입장은 가급적 삼가주세요.
⑤ 본당대표는 10시 50분까지 본부석에 참가 인원을 알려 주세요.
⑥ 해성·성실학교의 신자 학생은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2. 식사 ① 도시락을 지참해서 함께 모여 나누어 먹는 호뜻한 형제애를 실천합니다.
② 식수는 대회 본부에서 충분히 준비하겠 아오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도서판매 : “공부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① 한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발행도서.
가. 크리스찬 생활 제1집-800원
나. 그림성경-5,500원
② 전주교구 발행...해방신학-1,200원
2. 기념 페넌트 판매 ① 500원 한정 제작
② 값은 1매당 200원 이상
3. 평신도 뱃지 판매 : 값 300원
※ 한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작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평신도 뱃지임)

사무직원 모집 ②958

1. 지원기한 : 78. 9. 20(수) 17시까지
2. 모집인원 : 사무직원(5갑) 남자 1명
3. 전형일자 : 78. 9. 21. 10시 본교 과학실
4. 지원자격 : 고교이상 학력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1947. 1. 1이후 출생자
5. 제출서류 :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자필이력서, 병적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4항 자격기준 및 서류미비는 접수치 않음
6. 전형방법 : 필답고사(작문, 법제·경제대의, 상식),
주산실기, 면접 1978. 9. 10

전주해성고등학교



사도의 노래

장 그리스티나

옥좌화 가지마다
서리어 있는 영결세월은
하늘로 치달는
가신 님의 영원사랑이라.
눈길의 머무는 곳
천상에로의 길이 있기에
주의 왕국 일구다
피맺힌 한을 뿌리며
무지의 그늘에 들어진 님이시여!

고난의 언덕을 넘어면
갯빛 두려움도 사랑으로 승화되는
찬란한 꽃무지개속 나라

내 실곳 있어
가슴에 여울지는
하늘 향한 마음으로
님 가까이 살고지고.

오늘도
님 부르는 소리는
가지마다 꽃이 피고 잎이 되어
은누리, 누리마다 활짝 폈어라.
- 福者聖月에 - (군산 문율동 천주교회)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에게 보내은 정성

□ 합열 상지원(나환자촌) 공소 보수를 위해
※ 지난 8월23일부터 27일까지 부평 「영원한 도움의 기도의 집」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주최한 <신앙대학>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각 교구의 평신도 대표 130여명은 합열 상지원 공소 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수강생 일동 300,540원
 - ☆ 이한택 신부(예수회 신학원장) 20,000원
 - ☆ 송호림(서울 청담동 본당회장, 전북출신, 국회의원) 200,000원
- 계 520,540원

※ 합열 상지원 공소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본당 신부로서 상지원 공소와 본당 교우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공소를 보수하여 그늘진 영혼들을 돌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8. 9. 12 합열본당 서석구 신부 드림

□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를 위한 성금

- 대구 대교구 <마음회> 3,000원
- 중앙성당 방지거 3회 20,000원
- 순정이 성당 부녀회 20,000원
- 어떤 사제 5,000원

緊急조치 제10호

김 병 엽 신부

처녀가 아이를 가져 유대아 법정에서 물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쓰러지리라. "나는 죽도록 그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아니 영원히...!"

십여년 전보다 지금 더욱 사회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거라. 현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말이다. 요사이 우리 신자들의 주일 지키는 모습이 빈모하여 간다는 것은 이미 피부에 사무친지 오래이다. 지금으로부터 대개 장산이 한번 변하고도 조금전에는 우리 농촌에서 주일을 기준으로 농을 얻든지 집안일을 처리하였었다. 나의 짧은 신부생활에서 보고 느낀 일이나. 칠보면 석탄리 독막공소라는 산중 골짜구리에 약 30~40호 되는 교우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이들의 생활모습을 보면 완전히 주일을 중심으로 사는 교우들이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고 물으면 주일을 지키는 재미로 산다는 것이다. 6일간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 아침이면 침례를 받치며 쉬고, 오후 한나절은 다음 6일동안에 일할 농기구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관공데나 다른 어떤 때 공소에 가보면 이를 증명하여 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담배밭에 두번 바작으로 지나르면 집집마다 된다는 산뻬대기 밭을 가지고도, 이 교우들은 365-52(주일)=313일동안 일하는 데도, 논을 자주 남바우쪽에 사나가니까 외교인들이 회를 열어 같은 값이면 교우들에게는 팔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우들은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대인기다. 그러나 외교인들은 이상하단다. 왜 1년에 두달 가까이 일을 않고 노는데도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냐는 말이다.

현실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신자들도 사회인이니까, 사회에 발맞추어 살아 가려면 할 수 있는냐는 변명은 하지만, 그래도 주일 지키자는 마음의 뜻대가 강하게 작용만 하면, 습관적으로 미사 전후에 에누리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성체도 하지 않는 미사 한번 참례하면 그것으로 주일에 교우의 본분을 다하였다고 만족하는 교우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이다. 오죽해야 미사시간이 되면 성당문을 잠구어 버리는 성당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용기있는 그 분당신부에게 이불속에서 손뼉을 쳐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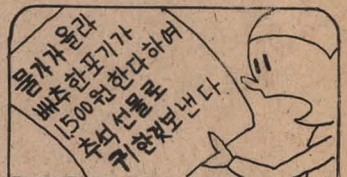
레지오 마리에, 성경연구회, 성민체사회...에 가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작전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당문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영세할 교우들의 교리, 적어도 20여년전에 주일을 지켜왔던 교우들은, 적어도 10여년전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교우들은,그당시의 좋은 습관을 후배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다져보자. 언제부터 주일에 자기 멋대로 일을 하고, 미사참례를 하지 않고 지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젓어버렸는지, 하도 템포가 빠른 세상을 살다보니 어느절에 그렇게 되었을까.

일선에서 사목하는 사제는 교우들의 빠른 생활을 직접 보고 그들과 동조되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게으르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그 누가 주일에 미사참례를 하지 않고 일을 하라는 편편을 주었는지? 자기가 하느님처럼, 자기에게 편편을 주는 교우들이 점점 늘어나는게 문제의 나의 긴급조치 제10호이다. (지난 6월 9일 주일처럼 늦비로 농사에 지장이 있을때는 예외로 일할수 있는것이다)

요심이 (268) 김병엽



교우들의 전당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어판) 앞

전화 ② 6094

◇경운기·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고아오스님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안이숙의 항일 투쟁수기
☆ 전주시내 본당에는 할인권이 비치되어 있음

출천역색 영화 죽으면 죽으리라

일반: 500원(할인권 지참자 300원) 학생 200원

일시: 1978. 9. 16~21 (오전 11시부터 연속상영)

장소: 전주 시민문화관. 주일은 1시부터 상영함

주최: 시청학교교육국 후원: 기독교 이리방송국, 교회연합신문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앞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순교자 현양대회...24일(일) 오전 11시~오후 4시, 전주 실내체육관...2면 참조
 - ① 행사...미사, 특강(순교사) 웅변대회, 성가 경연대회, 연극, 무용발표 등
 - ② 당일 교구내 모든 분당은 공식미사가 없습니다. 교구내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교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짐하는 이 행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③ 당일 실내체육관의 입장 완료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2. 레지오 마리에 교미시움...24일(일) 오후 1시, 덕진성당 ※ 제3주일 17일은 추석절이라 24일로 연기
 3. 교리교사 대의원회...24일(일) 오후 1시, 덕진성당, 대상...분당 교리교사 회장
 4. 베델 성서 연구회...25일(월) 오후 7~9시반, 가톨릭 센터. 주강 신청을 하신 뒤 가톨릭센터로 부터 통고를 받으신 분은 19일(화)-18일(수)까지 소정의 등록 절차를 가톨릭센터에 오셔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 울드레아...10월3일 오전 9시반,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 귀가시: 절두산, 순교성지, 용인자연농원 순회

※ 참가 희망자는 교구 사무국(가톨릭센터 내)에 문의하시기 바람-관광버스 4대 계약...선착순 접수-참가비 2,000원과 그의 교통비 약간
 7. 마인드 콘트를 공개강좌...28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윤파로 선생
 7. 군산시내 연합청년회 정기총회...23일(토) 오후 8시, 월명동성당
- 사회정의 평화 기원미사: (20일(수) 오후 8시 중앙성당)
- 복자성월 특별미사-(9월 25일(월)~30일까지) 새벽 6시 장소: 해성중학교 치명탑 (한복성 신부)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동 복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이 영 배
사도 회장 이 영 배

1. 성모회 월례회: 17일 공식미사 후
 2. 순교자 현양대회: 24일(일) 오전 11시
장소: 전주 실내체육관
지참물: 성경, 성가집, 도시락
※ 이날(24일) 10시 30분 공식미사 없음
 3. 미사 참례때 성경, 성가집 지참하세요
 4. 대학생회 정기총회
9월 23일 오후 5시 장소: 회합실
 5.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바랍니다
 6. 치명자산 참배: 주일학교 어린이들 9월 23일 3시(토)
※ 이날 어린이미사(오후 4시 30분)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68,476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2. 합동 위령미사: 10시미사
 3. 성가대: 매일 8시 성가연습
 4. B. F.: 21일 밤 회원 모임 바람
 5. 순교자 현양대회: 중식지참 요망(24일)
 6. 신축현금 현황
4만-김갑영 19,000, 김귀순 8,000, 손옥우 50,000, 이완주 10,000, 임춘택 10,000, 권병주 50,000, 정삼남 6,500, 홍순우 12,000, 유이수 10,000, 성심성 50,000, 이현·박성열(각 10,000), 장기등 8,000, 이정석 15,000 3만-손옥준 5,000
- 지난주 봉헌금: 40,940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울 희
사도 회장 김 성 립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3. 미사시간 엄수: 각 미사시간을 정확히 지킵시다
 4. 순교자 현양대회: 분당에 다음주 공식미사가 없고, 오전 11시에 실내체육관에서 교구의 합동미사가 있습니다
 5. 신자의 의무를?: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을 자진 납입하여 신자로서의 의무 다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61,280원

(윤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오늘 10시 공식미사
 2. 성가 경연대회: 9월 23일(토) 오후
 3. 순교자 현양대회: 9월 24일 오전 11시 실내체육관 도시락 준비(미사 봉헌기uitar행사)
 4. 전국 울드레아 대회: 10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
 5. 누갈다 유치원 가을송: 9월 20일(서울 창경원)
 6. 성지순례: 요안회 주최, 10월 1일 6시 출발
회비는 9월 24일까지 분당 사무실에 접수 바람
 7. 누갈다 유치원 운동회: 10월 3일(해성학교 운동장)
- 지난주 봉헌금: 99,09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주일은 지키고 계시는지요?...당신은!
 2. 주일미사 및 평일미사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오늘(24일) 8시
 4. 예비자 교리시간: 수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오전 11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맙시다
 5. 순교자 현양대회: 24일 11시 실내체육관
공식미사는 없고, 다름미사는 종전과 같음
 6. 가정방문 일시 및 반미사: 25일-금양동 1.2만, 26일-금양동 3.4만, 덕진 1만, 27일-덕진 3만, 28일-덕진 5만 6만, 29일-덕진 2만
 7. 9월 30일 토요일 5시미사를 치명자산에서 오후 6시에 있을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젊은이들의 모임: 매주(화) 저녁 8시
분당 젊은이들은 의무
- 지난주 봉헌금: 136,03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봉헌 ※ 교무금 완납: 10월 말일
 2. 영세일자: 9월 30일 저녁
교리: 수·금 저녁 8시 25~29일 밤
 3. 순교성지 순례: 26일 아침 7시
(김안드레아 신부 배생지-솔피, 회비-2,500원)
 4. 복자성월 9일기도 18일~26일/새벽 6시(치명자산)
 5. 성령기도회: 매 금요일 저녁미사 후
 6. 성가 경연대회: 출전 연습 매일 밤 8시
 7. 교미씨움 월례회: 24일 현양대회 후에
- 지난주 봉헌금: 156,790원
교무금: 180,400원(완납: 10월 말일)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합동 위령미사: 오늘 10시 공식미사
 2. 순교자 현양대회: 다음주(10시·4시 미사없음)
장소: 실내체육관
 3. 봉헌금에 정성을 다해 미수가 없도록...
 4. 주일학교 미사: 오늘·다음주 미사 없음
- 지난주봉헌금: 140,235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1. 성가연습: 토요일 오후 4시
 2. 순교자 현양 강연회: 9월 22일 오후 7시30분
강사-김진소 신부님, 제목-한국 순교자의 발자취
한국 순교자와 오늘의 교회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봉헌: 오후 8시미사
 4. 순교자 현양대회: 24일 오전 11시 실내체육관
분당미사: 오후 8시 모두 참석합니다
 5. 성지순례: 교한 천호 10월 3일 오전 10시
파티마 성당 출발, 1인당 1,500원
 6. 부녀회원 섬김: 17일 모금 계속 성원있으시길...
 7. 수녀원 증축기금: 정귀남 18,000원 누계: 492,000원
- 지난주 봉헌금: 27,045원

제 3 차 순교자 현양대회

일 시 : 1978. 9. 24(일) 11시

장 소 : 전 주 실 내 체 육 관

□ 대회 지향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 선조들의 거룩하고 높은 뜻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시복과 시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우리의 삶을 순교적인 그것으로 봉헌」해야 하는 것이다.

「순교자의 피는 내 신앙의 씨앗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어제의 피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가?」—이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3·1 사건>·<합평 고구마 사건>·<동일방직 사건>·<크고 작은 구조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 사건들>, 그리고 아직도 매듭이 안된 <소위 7·6 사태>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성직자를 함부로 다룰 때, 말없고 우직한 우리의 작은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왜 교수와 대학생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풍문으로만 들리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침묵을 지킬 때, 성경 말씀대로 <돌들이 일어나 웨칠 것>이다. 선조의 피흐름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피흐름이 없을 때 내일의 이 땅에 하느님의 복음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조용히 마주 서서 그와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겁게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뜨겁게 꿈틀거리야 한다.

□ 대회 일정

- | | |
|-----------|---|
| 오전 11시 | 미사(주례 : 김재덕 주교, 사제단 공동집전)
순교사 특강(김진소...대학생회 지도)
무용(성심 여교)
※주제 <영광> |
| 오후 1시 20분 | 점심 식사 |
| 2시 | 성가 경연대회 |
| 3시 30분 | 응변대회 입상자 응변발표 |
| 4시 | 시상식과 폐회식 |

□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순교자 현양대회 합동미사 안내 *

□ **입당전 노래**...정신 성가집 125장 “부자 찬미가”(성심여고 합창단)

□ **입당 노래**...정신 성가집 127장 “부자 찬가”, 126장 “무궁 무진세에”

- 1. 장하다 복자여 주님의 용사여 높이신 영광에 불타는 녀이여
칼아래 스러져 백골은 없어도 푸르른 그 충절 찬란히 살았네.
<후렴> 무궁화 머리마다 영롱한 복자시여 승리에 빛난 보람 우리에게 주옵소서
- 2. 기우는 정의의 목숨을 건지려 주림과 주위와 죽음과 싸우며
겨레의 힘으로 찾아온 진리를 굳세게 굳세게 피로써 지켰네<후렴>
- 1. 무궁 무진세에 천주께 영광이요 주의 용사들이 승전하여 계시니
실로 오늘날이 기쁜 날이로다. 참으로 치명의 오묘한 효험이요
치명의 그날은 영원한 탄일이요 성인의 탄일이로다.
<후렴> 복자시여 용명한 복자시여 우리에게 용덕을 주소서
찬류세상 영이별한 후에는 영복소에 만나게 하소서
영복소에 만나게 하소서.

□ **제 1 독서**...마카베오 후서 6장 18, 21, 24—31절

※ 당신이 두렵기에 즐거이 고통을 당하나이다.

□ **총 계 송**...공동체 성가집 276장 “눈물로 뿌리던 씨”(시내 본당 합창단)

□ **제 2 독서**...로마서 8장 31—39절

※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하느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공동체 성가집 4장 “알렐루야”(시내 본당 합창단)

□ **복 음**...요한 17장 11—29절

※ 세속은 그들을 미워하였다.

□ **강 련**...교구장 김재덕 주교

□ **사 도 신 경**

- **신자들의 기도**...1.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을 위하여
2.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3. 바른 나라 건설을 위하여
4.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하여
5. 우리들을 위하여

□ **봉 헌**...공동체 성가집 90장 “주여 우리는 지금”(시내 본당 합창단)

새 전례 성가집 53장 “주께 드리네”(시내 본당 합창단)

□ **영 성 체 송**...너희는 내가 당하는 온갖 시련중에 항상 같이 있었으니

내 너희에게 왕권을 주어,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리라

□ 영성체 노래... 새 전례 성가집 84장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시내 본당 합창단)
 공동체 성가집 387장 “형제에게 베푸는 것”, 422장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새 전례성가집 102장 “야훼는 나의 목자”(성심여고 합창단)

- 1. 우리가 어느때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목마른 주님께 마실것 언제드렸나
 <후렴> 진실히 네게 이르노니, 미소한 형제중에 하나에게 베푸는 것
 모두가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 2. 우리가 어느때 주님을 집에다 모셨고, 헐벗은 주님께 입을 것 언제 드렸나<후렴>
- 3. 우리가 어느때 주님을 돌보아 주었고, 병드신 주님께 문병을 언제 하였나<후렴>
- 1.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여 주의 빵을 나누세
- 2. 주의 진리 서로 나누세 주의 진리 서로 나누세
 죄악을 피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세
- 3. 주의 기쁨 서로 나누세 주의 기쁨 서로 나누세
 주님의 나라가 우리안에 있으니 서로 기쁨 나누세
- 4. 주의 희망 서로 나누세 주의 희망 서로 나누세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서로 희망 심으세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11차 총회가 채택한 성명서에 대한 재확인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978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에서 제11차 정기총회와 연 수회를 마치며, 최근에 자행되는 그리스도교적 노동운동과 농촌운동에 대해 용공시하는 부당한 억압을 중대시 하고, 노동자·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외부적 어려움에 함께 대처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1. 우리는 동일방직 사건에 즈음해서 발표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1978년 4월 8일자 성명서를 전폭 지지하며, 정부 당국과 관계 기업체가 이를 수락하여 조국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 건설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1. 우리는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밝혀낸 함평 고구마 사건이 농민들의 권익옹호와 서정채신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며, 이 사건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춘천과 광주에서의 농민회 간부의 입건 구속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 1.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농촌운동과 노동운동을 용공시하는 처사가 국민총화를 저해하며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이적행위로 단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관계당국은 즉각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 의법 처단할 것을 촉구한다.
- 1. 우리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평신도에 대한 계속되는 직·간접의 압력과 탄압사례를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이의 즉각 중지를 촉구한다.
- 1. 우리는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 아니라 기본인권에 속하는 기능임을 재확인 하며, 모든 국민이 생각할 자유에 따르는 알고 알릴 권리를 당국이 보장해 줄 것과, 언론정의 회복을 위

한 언론기관의 자각을 촉구한다.

1978년 6월 6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이를 1978년 9월 24일에 있는 전주교구 순교자 현양대회에서 재확인 함.

□ 시성을 위한 기도

모든 성인들의 덕행으로 찬미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당신은 일찌기 당신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103위 우리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하여, 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복자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환난 중에서 더욱 보호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특은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빨리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우리 복자들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7·6사태에 대한 전주교구 평협의 성명서 재확인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1978년 7월 6일 밤에 있었던 “파티마 성당에의 난입” “박종상 신부님에 대한 만행적인 집단폭행 및 유기” 7월 10일밤에 있었던 “강덕행 신부님에 대한 구타” “다섯분의 수녀님에 대한 머리수건을 벗기는 무례한 처사” 등을 종교를 탄압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전주교구 평신도의 결의를 밝히며,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순교자의 후예답게,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의 평신도답게 그리스도 안에 교구 사제 단과 일치하여 순교자적인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위와 같은 만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행을 지시한 책임자와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제단이 요구한 6개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어, 정부당국자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978년 7월 13일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퇴 장 노 래...공동체 성가집 275장 “순교자의 믿음”, 정선성가집 128장 “병인 순교복자 노래”

- 1. 환난의 핍박중에도 순교의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후렴> 순교의 믿음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리라
- 2. 순교자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왔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리라<후렴>
- 3. 순교의 믿음본받아 원수도 사랑하리라, 인자한 말과행실로 이 믿음 전파하리라<후렴>
- 1.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이 무궁화야 부르는자 알렐루야
서럽던 이강산야 한목숨 내어던진 신앙의 용사들이
끝없는 영광속에 하늘에 살아있다
- 2. 병인년 그 옛날에 구름재 서릿발에 팔도는 오가작통
피바다 이뤘을제 묻노니 말하여라 한강야 대동강야
순한 양 사학죄인 얼마나 죽었더냐